

1. 짐을 지는 기쁨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바리새인들을 향한 세가지 화도 그렇고, 오늘 다루게 될, 율법 교사들에 대한 세가지 화도 마찬가지로인데, 예수님이 화를 선언하시는 것은 단지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라는 특정 부류의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율법교사의 태도와 자세를 갖고 살면 반드시 저주를 받게 된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 율법교사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태도와 자세가 무엇입니까? 세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무거운 짐을 다른 사람에게 지우고 자신은 손 하나 까닥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율법교사가 저야 할 짐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입으로 가르친다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친다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에 병이 들면 짐을 지는 일을 회피합니다. 왜 짐을 지지 않으려 할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 사랑이 식은 것, 그것 저주 아닙니까?

2. 책망의 말씀을 거부함

신앙이 병들면 나타나는 두 번째 증상은 죄에 대한 책망의 말씀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건강하게 살아있으면 죄를 지적하는 폐부를 찌르는 말씀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하게 되지만 신앙이 병들면 죄를 지적하는 말씀앞에 고개를 돌려 버립니다.

3.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함

신앙이 병들 때 나타나는 증상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란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속에 들어가지 않고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안식과 평강과 희락과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반대로 내 환경이 어떠한데라도, 실직을 당하고 건강이 무너지는 상태라도 하나님의 다스림속에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안식과 평강과 희락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신앙에 병이 들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까지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예수님께로 '화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순모임 질문 (3월 3일 설교)

- 1) 이번 주 설교 내용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단어 하나를 말해보시고, 이 단어를 선정한 이유를 나누어주세요.
- 2)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세 가지 유언은 무슨 내용입니까?
- 3)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유언을 지키며 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 4) 이번 주 설교 내용의 핵심을 한 단어로 표현해 보시고 자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나누어보세요.

♥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

예수그린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 1. **예배 안내** *새벽기도회(월-금) : 새벽 6:00 *수요오전예배 : 수요일 오전 10:30
*금요기도회 : 금요일 저녁 8:00
*순예배 : 순별로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드립니다.
- 2. **2024년 표어** - “너희 자녀를 위해 올라”
- 3. **비전헌금** - 오늘은 비전헌금 주일입니다. 비전헌금은 선교사들에게 보내드립니다.
- 4. **3부 젊은이예배** - ‘요한복음으로의 여행’. 오늘부터 개강합니다.
*설교 : 나계수 목사
- 5. **매일성경 판매** - 가격 : 5천원
- 6. **오케스트라 단원 모집** - 바이올린, 첼로, 플룻, 피아노반에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모임 : 토 오전 10시 (약기 무상 대여)
- 7. **자녀를 위한 축복기도문** - 축복기도문이 새로 제작되었으니, 필요하신 분은 로비에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 8. **예배 시청 안내** - 주일설교 및 새벽예배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참여방법 : 유튜브에서 ‘예수그린교회’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선교지 소식 송중훈 선교사
홍콩에서의 사역을 정리하고 광동성 심천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심천에서의 새로운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 예수 그린의 비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예수님의 삶과 인격을 닮아 온 세상에 바른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간다.

... 예수 그린의 사명

예수 그린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세상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의 교회임을 자각하여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한다.



